

# 석유시장 Katrina 충격 “절대적”

블룸버그, 2004년 허리케인 아이반보다 강력 ... 휘발유 3달러 넘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멕시코만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2004년 정제마진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던 허리케인 아이반보다 강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룸버그는 미국 시장조사기업인 샌포드 C. 번스타인의 9월2일자 보고서를 인용해 Chevron과 Shell 등 석유 메이저 생산량의 상당한 부분이 2개월 혹은 그 이상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천연가스는 해변 가스 생산시설이 침수돼 손실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주 19% 급등하고 해변 생산시설이 타격을 입어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미국 남부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를 유린한데 이어 뉴올리언즈에 홍수를 야기했다.

미국 정제능력의 11%를 차지하는 루이지애나 지역 8개 정유공장이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휘발유 가격은 많은 지역에서 갤런당 3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

<화학저널 2005/09/06>